

I . 토착신앙

1. 고구려의 토착신앙
2. 백제의 토착신앙
3. 신라의 토착신앙
4.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관계

I. 토착신앙

토착신앙은 대체로 고대사회의 신앙이라는 측면보다는 원시종교적인 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것은 종래 고대국가에 대한 기준이 집권화된 관료체제에 두어졌기 때문이었다. 즉 율령반포와 불교공인을 고대국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고대국가와 고대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불교를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류학적 지식이 한국 고대국가 형성에 원용되면서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그에 따라 고대국가 형성시기가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종래 고대국가의 이데올로기라고 하였던 견해가 다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라고 수정되기도 하였다.¹⁾

이와 같이 고대국가에 대한 개념과 그 시기가 바뀌게 됨에 따라 불교가 고대국가에서 차지한 영향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래 고대국가 형성시기와 불교의 공인시기를 비슷한 시기로 보았으므로 불교를 고대국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하였으나 국가 형성시기가 훨씬 앞선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고대의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상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에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의 토착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청되는 것이다.

종래 불교수용 이전의 토착신앙에 대한 연구는 대개 원시신앙 내지는 원시종교의 입장에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일본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한국학자들도 역사학자나 민속학자들 거의 모두가 토착신앙을 원시신앙이라는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실증사가들은 정치사나 제도사를 중요한 연구과제로 하였는데 그 가운데 고대국가에 있어서 율령반포를 중요시하고 그 율령반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수용되었던 불교를 고대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의 고대국가에 있어서 그 기

1) 李基白, 〈新羅初期佛教와 貴族勢力〉(《震壇學報》 40, 1975), 23~39쪽.

준을 율령반포와 불교공인으로 파악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고대국가에 대한 개념과 기준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인류학이론의 한국사への 적용이라는 각도에서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관심이 기울어지면서 고대국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소개되었다. 특히 서어비스와 프리이드의 인류학이론이 소개되면서 통합이론과 갈등이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²⁾ 또한 최근에는 종합적인 견해가 인류학계에서 제기되고, 국가형성에 있어 왕권의 신성성을 중요시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³⁾ 즉 구미 인류학계에서도 국가형성에 있어 신앙적인 측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토착신앙에 대한 자료는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신화와 제의에 관한 자료만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신화와 신앙의 이론적 구조라고 한다면, 제의는 신앙의 실천적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양자는 깊이 얽혀 유기적인 전체성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⁴⁾ 따라서 우리는 토착신앙에 대한 이해를 남아 있는 신화와 제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삼국의 토착신앙에 대해서 기록한 문헌은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여태까지 이 시기의 사상과 문화를 논할 때는 불교와 유교 또는 도교에 대해서만 논하였고, 귀족들의 문화만을 언급하였다. 그 까닭은 자료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는 시각 자체가 지배층 위주였기 때문이다. 물론 남아 있는 자료가 지배 엘리트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지배층 위주로 사상과 문화를 살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배층이 남긴 자료라 하더라도 그 시대 피지배층의 감정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토착신앙의 경우는 불교와의 마찰을 보이는 기록들을 잘 이용하면 그 실체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이 시기의 사상과 문화를 논할 때 유학·불교·도교와 귀족문화에

2) 金貞培, 〈國家起源의 諸理論과 그 適用問題〉(《歷史學報》79, 1982), 1~27쪽.

3) 金光億, 〈國家形成에 관한 人類學的 理論과 韓國古代史〉(《韓國文化人類學》17, 1985), 17~33쪽.

4) 琴章泰, 〈韓國古代의 信仰과 祭儀〉(《同大論叢》8, 同德女大, 1978), 5~19쪽.

국한한 것은 역사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시대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크게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의 해석에만 매달렸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불교가 전래·수용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래의 토착신앙을 신봉하였으며, 불교를 공인하면서 토착신앙과의 갈등과 마찰을 겪으면서 불교와 토착신앙과 융화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간과하였다. 유교나 불교·도교는 모두 중국에서 전래된 사상과 종교이다. 따라서 한자와 한문에 대한 소양없이 쉽게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에 한자와 한문에 대한 소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계층에 불과하였다. 일반 백성들은 한자와 한문에 대한 소양을 갖고 있지 않아 유학·불교·도교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차단된 상태였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전래 수용된 儒·佛·道는 일반 백성들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대중화되어 가면서 토착신앙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물론 토착신앙이 모두 피지배층에 의해서만 신앙된 것은 아니었다. 토착신앙이 특히 피지배층에 의해서만 신앙된 것은 유학과 불교·도교가 전래 수용되고 지배이데올로기화한 이후의 일이었다. 외래신앙이 전래·수용되기 전에는 오히려 토착신앙이 지배이데올로기였다고 할 수 있다.⁵⁾ 종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토착신앙은 외래신앙이 수용된 후 그 지배이데올로기의 위치를 잃고 민간신앙화한 것이다. 그러나 지배이데올로기의 위치를 잃었지만 일반 백성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배층이 외래신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하였다면 민중들은 토착신앙을 민중이데올로기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층은 외래신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하면서도 각종 토착신앙의 의례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토착신앙의 편린이 남아 있는 의례를 통하여 토착신앙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삼국의 토착신앙을 나라별로 천신신앙·조상숭배신앙·지신신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5) 崔光植, 〈韓國 古代社會의 起點과 終點－國家祭祀를 중심으로－〉(《經濟史學》 21, 1996), 25~44쪽.

1. 고구려의 토착신앙

1) 천신신앙

고구려에서 하늘(天神)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三國志》魏書 東夷傳, 《三國史記》祭祀志, 《東國李相國集》東明王篇, 〈廣開土王陵碑〉 등을 들 수 있다.

《동국이상국집》동명왕편과 〈광개토왕릉비〉에는 고구려가天帝의 자손임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삼국지》위서 동이전에는 고구려의 제천의례인 東盟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나라의 큰 행사로 이름을 동맹이라 한다. 그 공적인 모임에는 의복을 모두 비단과 금은으로 장식하여 입는다. 大加와 主簿는 모두 幘을 쓰는데 (중국의 책과) 같기는 하지만 뒤로 늘어뜨리는 부분이 없으며, 小加는 折風을 쓰는데 모양이 고깔과 같다.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어 隧穴이라 하는데 10월 國中大會 때 隧神을 모셔다가 나라 동쪽의 위에서 제사를 지내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좌에 모신다. 감옥은 없으며 죄가 있으면 제가가 의논하여 문득 죽이고 처자를 몰입하여 노비로 삼는다(《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 高句麗).

10월에 제천의례를 행하는데 그 제의는 거국적인 대회이며 그 제의의 이름은 동맹이라 하였다. 이 동맹이란 제의명은 고구려의 건국자 동명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제의는 제천의례이면서 또한 국조신에 대한 제의로서 양면성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천의 자손인 동명에 대한 제사의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천대회는 공회로서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이며 단순한 민속행사가 아닌 것이다. 아울러 그 공회에 참석할 때 의복을 모두 비단과 금은으로 장식하여 대단히 화려하게 의례를 거행하였다. 따라서 이 의례는 지배계층의 의례라고 볼 수 있다. 모자를 쓰는데 대가와 소가가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복장의 차별성은 바로 고구려 지배

층 내부의 계층성이 매우 확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왕이 제의를 주관함으로써 왕권의 위엄을 보여 수직적인 지배구조를 과시하는 것이다. 제천의례를 행하는데 수혈에서 신을 맞이하여 神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맞이곳·오구곳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⁶⁾ 수혈의 유적이 지금 集安市 下解放村 산중턱에 通天洞과 國洞大穴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⁷⁾ 東盟은 산위의 통천동과 국동대혈에서 왕과 귀족들의 제례로 시작하여 산아래에 일반민들이 모여 가무를 즐겼다고 생각한다.⁸⁾ 제사의례 중에 재판과 형벌이 집행된 경우는 〈부여전〉과 신라의 금석문에서도 볼 수 있다. 종교적인 축제에 범죄자를 재판하는 것은 재판이 神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신앙에 뿌리를 두는 것임을 인류학의 지식에 비추어서 알 수 있다.⁹⁾ 이것은 제의가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¹⁰⁾ 이처럼 제천의례는 종교적인 행사일 뿐만 아니라 지배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던 것이다.

《三國史記》祭祀志에서는 고기를 인용하여 제천의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고기에 운운 … 고구려에서는 항상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서 모여 돼지와 사슴을 잡고 하늘과 산천에 제사하였다(《三國史記》권 32, 志 1, 祭祀).

《삼국지》위서 동이전에서는 10월에 제천대회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삼국사기》제사지에서는 3월 3일에 제천의례를 행하였다고 하였다. 그 제사 지내는 날을 볼 때 중국문화의 영향이 엿보이는데 돼지와 사슴을 잡는 희생의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늘과 더불어 산천에 함께 제사를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장천 1호분은 그림의 내용이 제천의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냥하는 모습은 제사에 필요한 犧牲을 잡기 위한 것이며, 나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제의를 행하는 모습이며, 춤추는 모습도 제의 과정의 하나이다.

6) 金宅圭, 《韓國民俗文藝論》(一潮閣, 1980), 22~32쪽.

7) 鄭永鎬, 〈高句麗의 東盟과 그 遺蹟〉(《于江權兌遠教授停年紀念論叢》, 1994), 7~9쪽.

8) 申滄植, 《集安 高句麗遺蹟의 調査研究》(國史編纂委員會, 1996), 167~169쪽.

9) 李基白, 〈韓國 古代의 祝祭와 裁判〉(《歷史學報》154, 1997), 22~27쪽.

10) 崔光植, 《韓國古代의 祭儀 研究》(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0), 40쪽.

2) 조상숭배신앙

고구려의 조상숭배신앙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始祖廟에 대한 기록이다. 고구려의 시조묘에 대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제사지에 실려 있는 〈고기〉을 보면 神廟에 대한 기록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기에 이르기를 동명왕 14년 가을 8월에 왕의 어머니 유화가 동부여에서薨去하자 그 왕 금와가 태후의 예로서 장례를 치루고 드디어 신묘를 세웠다. 태조왕 69년 10월 부여에 순행하여 태후묘에 제사하였다. 신대왕 4년 9월 卒本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하였다. 고국천왕 원년 9월, 동천왕 2년 2월, 중천왕 13년 9월, 고국원왕 2년 2월, 안장왕 3년 4월, 평원왕 2년 3월, 건무왕 2년 4월 모두 위와 같이 행하였다(《三國史記》권 32, 志 1, 祭祀).

먼저 태후묘 제사에 대해 살펴보면 동명왕 14년(B.C. 24) 8월에 왕의 어머니인 유화가 동부여에서 죽자 금와왕이 태후의 예로서 장례를 치내고 신묘를 세웠다. 그리고 태조왕 69년(121) 10월에 부여에 순행하여 태후묘에 제사지냈다. 여기서 신묘는 태후묘를 말하며 이는 동명왕 14년에 세웠는데 그에 대한 제사는 태조왕 69년에 단 한번 행해졌다. 그 이전에는 왕이 직접 가지 않고 사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나무를 깎아 부인상을 만들어 제사하였다.

그런데 왕이 직접 행한 태후묘에 대한 제사는 태조왕 이후에는 없고, 졸본에 있는 시조묘제사가 주종을 이루었다. 신대왕 4년(168) 4월, 고국천왕 원년(179) 9월, 동천왕 2년(228) 2월, 중천왕 13년(260) 9월, 고국원왕 2년(332) 2월, 안장왕 3년(521) 4월, 평원왕 2년(560) 2월, 건무왕 2년(619) 4월에 왕이 졸본에 직접 행차하여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제사지〉에는 언제 동명왕묘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고구려본기〉에는 대무신왕 3년(A.D. 20)에 동명왕묘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세웠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조묘가 졸본에 있었으니 졸본에 세워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대왕 3년 9월에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10월에 졸본으로부터 돌아왔다고 되어 있다. 다음 왕인 고국천왕도 즉위 다음해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즉 즉위 다음해 우씨를 왕후로 세우고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한편 동천왕은 우씨를 왕후로 봉하기 직전에 졸본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즉 동천왕은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대사면을 행하고 난 뒤 우씨를 왕태후로 삼았다. 그런데 동천왕 21년(247)조를 보면 廟社를 평양성으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동천왕 21년 환도성이 난리를 겪어 다시 도읍하기 어려우므로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묘사를 옮겼다. 여기서 묘사는 종묘와 사직을 이르므로 환도성에 묘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조묘는 그 이전에도 졸본에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졸본에 그대로 있다. 왜냐하면 다음 왕인 중천왕 13년(260)에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조묘와 종묘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졸본에는 시조묘가 있고, 종묘는 도읍을 옮김에 따라 함께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조묘는 시조 동명성왕이 묻힌 졸본의 시조묘 주변의 사당을 의미한다.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있는 장군총의 맨 꼭대기에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라 볼 수 있는 기둥구멍 자리가 있다. 태왕릉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의 적석총 위에는 수많은 기와장이 널부러져 있다. 이 적석총 위에도 역시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군총과 적석총 위에 있었던 건물은 고인을 기리는 사당이었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사당은 무덤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차츰 무덤 옆으로 위치가 옮겨진 것이다. 한편 종묘는 시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왕들을 함께 모신 사당이다. 따라서四時로 행하는 제사는 종묘에서 행하고 왕의 즉위의례 등 특별한 경우에 시조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고국원왕 2년(332)에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목적이 다소 분명히 나타난다. 왕이 즉위 다음해 봄에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하였으므로 이것은 즉위의례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질

병을 문안하고 진흙한 것을 볼 때 이 시조묘제사는 巡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¹¹⁾

한편 고국양왕 때 종묘를 중수하는 기사가 보이는데 이는 시조묘와는 다른 것으로 동천왕 21년(247)에 평양성에 옮겼던 묘사 등의 종묘이다. 불교의 공인과 함께 宗廟와 國社를 수리하였다. 이것은 사상정책에 있어 불교를 공인하면서 그에 대한 일종의 무마책인 것 같다. 그 이후 광개토왕·장수왕·문자왕대에는 시조묘제사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약 200년간 시조묘제사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다가 안장왕 3년(521)에 왕이 졸본에 순행하여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고 나온다. 즉위 직후에 행한 것을 볼 때 즉위의례적 성격이 강하며 순행의 목적도 있었다. 평원왕 2년(560) 2월에 왕이 졸본에 순행하여 시조묘에 제사하고 3월에 돌아오면서 州郡의 獄에 갇힌 죄수를 사면하여 주었다. 영류왕 2년(619)의 시조묘제사도 이와 같은 성격을 보이고 있다. 즉위 다음해인 2년 2월에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하고 4월에 왕이 졸본에 순행하여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인 보장왕 5년(646)에는 동명왕모 塑像이 3일이나 피를 흘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고구려의 멸망을 예고하는 듯하다. 고구려의 멸망은 제사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다. 보장왕 25년에 왕이 태자 福男을 唐에 보내 태산에 제사를 지내는데 시위하게 하였다. 27년(668)에는 唐高宗이 李積으로 하여금 보장왕을 召陵에 바치고 軍容으로 하여금 鼓歌를 연주하게 하고 京師에 들어가 太廟에 바치게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종묘와 사직이 끝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멸망은 결국 제사권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제사체계 속에 편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사의례가 갖는 정치사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지신신앙

고구려에서의 땅에 대한 신앙에 관해서는 먼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11) 金英河, 〈新羅時代 巡幸의 性格〉(《民族文化研究》 14, 高麗大, 1979), 119~245쪽.

찾아볼 수 있다.

그 나라 동쪽에 큰 구멍이 있어 이름을 수혈이라 하였는데 10월 국중대회 때 수신을 맞이하여 모시고 나라에 돌아가 동쪽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들어 신좌에 모신다(《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 高句麗).

10월 제천대회인 동맹을 행할 때 하늘에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해서도 제사의례를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 동쪽에 있는 큰 굴에서 지신을 맞이하여 나라 동쪽에 모셔다가 나무로 만들어 신좌에 모셨다. 신의 모습을 나무에 의탁하였다. 따라서 국중대회인 동맹이 열릴 때마다 천신과 아울러 지신에 대한 제사의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도 지신신앙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요, 휘는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부여왕 解夫婁가 자식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 후사를 구하고, 말이 가는데로 鯤淵에 이르러 큰 돌이 서로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돌을 찢치게 하니 금색으로 된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왕이 기뻐하여 이는 하늘이 나에게 뒤를 잇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거두어 기르니 이름을 金鰲라 하고 장성하여서는 태자가 되었다(《三國史記》권 13, 高句麗本紀 1, 시조 동명성왕).

시조 동명성왕의 출계를 밝히고자 하는 서두에서 부여왕 해부루가 태자인 금와를 얻게 된 과정을 기술한 내용이다. 그런데 금와를 얻기 위하여 산천에 제사를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말이 곧연으로 이끌고 간 것이다. 거기서 신이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금색 모양의 어린아이를 얻게 되었다. 해부루는 제사를 지낸 후에 이러한 신이한 일이 일어났음으로 하늘이 자기에게 내려준 것으로 이해하고 테려다 길렀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장성하여서는 신이하게 탄생한 그가 태자가 될 수 있었다. 산천에 대한 제사가 하늘에 닿아 돌에서 아이를 얻었고 그 아이는 마침내 후사를 잇게 된 것이다. 물론 고구려의 것은 아니고 부여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고구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구려의 山上王도 자식이 없어 산천에 제사하여 아들을 얻었다.

7년 3월 왕이 자식이 없어 산천에 기도하였다. 이 달 15일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小后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왕이 꿈에서 깨어나 군신들에게 말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이와 같이 순순히 이야기하였으나 소후가 없으니 어찌하느냐’고 하였다. 乙巴素가 대하여 아뢰기를 ‘천명은 가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기다리십시오’라고 하였다(《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산상왕 7년).

산상왕 7년(203) 3월에 왕이 자식이 없어 산천에 기도한 것은 부여의 경우와 같다. 기도의 효험으로 꿈에 하늘이 소후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이 도와주는 구조도 부여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아들을 찾게 되는 과정에 부여의 경우는 말이 길잡이가 되는데 고구려에서는 돼지가 길잡이가 된다.

12년 겨울 11월에 郊豕(제사에 사용하는 돼지)가 달아나자 담당자가 이를 쫓아 酒桶村에 이르렀으나 머뭇거리다 잡지 못하였다. 이때 스무살쯤 된 아주 예쁜 여자가 웃으며 앞에서 교시를 잡아 쫓아간 사람이 이를 얻을 수 있었다. 왕이 듣고 이상히 여겨 그녀를 보고 싶어 미행하여 밤에 그녀의 집에 이르러 시종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그 집에서는 왕이 왔다는 것을 알고 감히 거역하지 못하여 방으로 들게 하고 그녀를 불러 모시도록 하였다. 그녀가 고하여 가로되 ‘대왕의 명령은 감히 피할 수 없으니 만약 자식이 생기면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이에 왕이 약속을 하였다. 丙夜(새벽)에 이르러 왕이 일어나 환궁하였다 … 13년 가을 9월에 주통춘녀가 아들을 낳았다. 왕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나에게 후손을 내려주신 것이라’ 하였다. 교시의 일로부터 시작되어 그 어미를 만났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교시라 하고 그 어미를 小后로 삼았다. 처음에 소후의 어미가 잉태하고 아직 낳지 않았을 때 무당이 말하기를 ‘만드시 왕후를 낳을 것이라’ 하여 어미가 기뻐 이름을 后女라 하였다 … 17년 봄 정월에 교시를 태자로 삼았다(《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산상왕).

제사에 희생물로 쓰이는 돼지가 도망간 것을 계기로 주통춘의 여자를 알

게 되었고 그녀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다. 이것은 5년전에 산천에 기도하여 하늘이 꿈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된 것이다. 더구나 소후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꿈의 내용과 같다. 또한 그의 어머니의 탄생에 있어서도 무당이 왕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다. 왕은 이 아이를 하늘이 내려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마침내 왕태자로 삼았다. 산천에 대한 제사가 꿈에서 앞일을 예언받게 되었으며 제사에 쓰는 돼지가 여자를 만나게 하였으며 마침내 아들을 낳았으며 왕태자가 되었다. 산천에 대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난리를 겪을 때 도움을 옮기며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와 함께 토지신을 모시는 社를 함께 옮겼다. 東川王 21년(247)에 환도성이 난리를 만나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게 되자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묘사를 옮겼다.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와 함께 토지신을 모시는 사를 옮기는 것을 볼 때 토지신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故國壤王 때에도 종묘와 국사를 함께 수리하였다. 고국양왕 9년(391) 3월에 왕이 불교를 공인하면서 국사를 세우고 종묘를 수리하였다. 종묘가 기본적으로 왕실의 조상숭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종묘제의 변화가 왕실세계 인식의 변화와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²⁾ 하여튼 여기서도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와 토지신을 모시는 국사가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平原王 때에는 가뭄이 들자 산천에 기도하였다. 평원왕 5년(563) 여름에 가뭄이 크게 들자 임금이 평상시보다 반찬의 가지수를 줄이고 산천에 기도하였다.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산천에 제사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사냥을 하고 나서도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 《삼국사기》 제사지에 〈고기〉를 인용하여 고구려에서는 매년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하늘과 산천에 제사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사슴과 돼지를 잡아 희생으로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고구려에서는 매년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

12) 趙仁成, <4, 5세기 高句麗 王室의 世系認識 變化> (《韓國古代史研究》, 1991), 70~74쪽.

2. 백제의 토착신앙

1) 천신신앙

백제에서도 천신에 대한 숭배가 초기부터 이루어져 《삼국사기》 제사지에서는 중국의 각종 문헌을 인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먼저 《冊府元龜》를 인용하여 백제의 제사의례를 논하고 있다.

책부원구에 가로되 백제에서는 사계절의 가운데 달에 왕이 하늘(天)과 五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시조 仇台의 廟를 國城에 세워 해마다 네번 지냈다(《三國史記》 권 32, 志 1, 祭祀).

이 기록을 통하여 백제에서는 왕이 하늘에 해마다 네번 제사지낸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천의례가 가장 중요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5제의 신과 시조 구태묘보다도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제의 신과 함께 제의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중국문화의 영향이 깊이 침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측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의 중국적 개념화의 영향일 수도 있다 하겠다.

〈古記〉를 인용한 다음의 기록은 천지신에 대한 제사일시가 기록되어 있다.

고기에 가로되 온조왕 20년 봄 2월에 단을 설치하여 천지신에 제사하였다. 38년 겨울 10월, 다루왕 2년 봄 2월, 고이왕 5년 봄 정월, 10년 봄 정월, 14년 봄 정월, 근초고왕 2년 봄 정월, 아신왕 2년 봄 정월, 전지왕 2년 봄 정월, 모태왕 11년에도 이와 같이 하였다(《三國史記》 권 32, 志 1, 祭祀).

온조왕 20년(A.D. 2) 2월에 단을 설치하여 천지신에 제사지내고, 38년에도 이에 제사를 지냈다. 그 뒤 다루왕 2년(A.D. 29)에도 제사를 지냈다. 고이왕 때에는 5년(238) 정월, 10년 정월, 14년 정월 등 3회에 걸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근초고왕 2년(347) 정월, 아신왕 2년(393) 정월, 전지왕 2년(406) 정월, 모태왕 11년(489) 10월에도 위와 같이 제사지냈다.

다루왕·근초고왕·아신왕·전지왕 때에 제사를 지낸 해가 신왕 즉위 다음해이므로 즉위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온조왕 때의 제사나 고이왕 때의 제사, 모태왕 때의 제사는 즉위의례로 볼 수가 없다. 한편 제사의례가 행해진 달(月)을 보면 대부분이 정월이나 2월이다. 이것은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외 온조왕 38년이나 모태왕 11년에는 10월에 제사의례가 행해졌는데 이것은 삼한의 10월제와 같은 시기로 농경을 마치고 수확의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삼국사기》백제본기를 보면 제의에 대해 보다 상세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온조왕 20년에 대단을 설치하여 천지에 제사를 지냈는데 신이한 새 다섯 마리가 날라왔다고 한다. 천신과 새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조 온조왕 때에는 동명묘와 국모묘, 천지에 대한 제사가 따로따로 행해졌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인 다루왕대에는 동명묘와 천지에 대한 제사가 같은 해에 행해졌다. 한편 기루왕대·개로왕대·근초고왕대 등 약 200년간에는 시조 동명묘와 천지에 대한 제사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구수왕 15년(227)에 동명묘에 대한 제사가 보이고, 다음 고이왕 5년 정월에 천지에 제사를 지냈는데 鼓와 吹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은 《삼국지》한전을 보면 제천대회 때 소도에 대목을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았는데 이와 유사한 모습이다. 비류왕 10년(313) 정월에도 천지에 대한 제사가 남교에서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어 중국의 교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왕이 친히 희생의례를 행하였는데 제사의례에서 희생의례가 중요한 것은 최근 발견된 <울진봉평신라비>나 <영일냉수리신라비>에서 확인되었다. 어떤 짐승을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온조왕대 기록을 보면 사슴(鹿)을 희생으로 하였다. 한편 근초고왕대 이후에는 천지신에 대한 제사와 함께 중신의 임명기사가 보인다. 그런데 법왕 2년(600) 기우 기사는 백제에서의 제의와 불교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위 다음해 동명묘와 천지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사찰에서 비가 오기를 빌었다. 이것은 시조묘 제사나 천지신 제사보다 불교의례가 중요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조상숭배신앙

백제의 조상숭배신앙도 시조묘신앙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특히 시조묘에 대한 제사의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백제의 시조묘는 동명묘와 구태묘 두 계통으로 전한다. 중국측 자료에서는 구태묘로, 한국측 자료에서는 동명묘로 기록되어 있다. 먼저 중국측 기록으로 《책부원구》를 보면 백제에서 4계절의 가운데 달마다 왕이 천 및 오제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시조 구태묘를 국성에 세워 1년에 네번 제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오제지신은 오방(동·서·남·북·중)의 방위신을 말하는데 지신을 의미한다. 백제는 천신·지신·시조묘에 제사를 지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시조가 구태이므로 구태묘를 세워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이와 유사한 기록이 《수서》백제전에도 나타나 있다. 동명의 후손으로 구태라는 자가 있는데 매해 사계절 가운데 달에 왕이 天 및 五帝의 神에 대해 제사를 지내고 그 시조 구태묘를 국성에 세워 일년에 네차례나 제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구태가 동명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은 《북사》백제전에도 마찬가지로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제사지에서는 여러 사서를 인용 비판하여 시조묘를 동명묘로 판단하였다. 《해동고기》에서는 시조를 동명이라고도 하고 우태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북사》나 《수서》는 동명의 후손인 구태가 있어 대방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는데 여기의 우태는 구태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삼국사기》에서는 동명이 시조였다는 사적이 명백하므로 그 나머지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삼국사기》제사지를 보면 <고기>를 인용하여 천지신에 제사한 기록과 함께 시조 동명묘에 대한 제사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시조 동명묘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고기에 이르되 다루왕 2년 봄 정월 시조 동명묘를 배알하였다. 책계왕 2년 봄 정월, 분서왕 2년 봄 정월, 계왕 2년 여름 4월, 아신왕 2년 봄 정월, 전지왕 2년 봄 정월 모두 위와 같이 하였다(《三國史記》권 32, 志 1, 祭祀).

다루왕 2년(29) 정월에 시조 동명묘에 배알하고, 책계왕 2년(287) 정월, 계

왕 2년(345) 4월, 아신왕 2년(393), 전지왕 2년(406) 정월에도 이와 같이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상 여섯번의 제사가 모두 즉위 다음해에 이루어졌으므로 즉위례의 성격이 분명하다 하겠다. 또한 제사의례를 행한 달도 계왕 2년 4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월에 이루어져 기풍제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 제사지에서는 고기를 인용하여 천지신과 동명묘에 대한 제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백제본기〉를 보면 제사의례에 대해 보다 상세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시조 온조왕조를 보면 온조왕 원년 5월에 동명묘를 세웠다고 되어 있다. 신라의 경우는 남해왕대, 고구려의 경우는 대무신왕대 시조묘를 세웠는데 백제는 시조묘를 시조 온조왕대에 세웠다. 백제 시조는 온조왕이나 시조묘는 동명묘인 점이 특이하다. 더구나 백제의 시조에 대한 견해는 그외에도 비류왕·구태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다.¹³⁾ 그런데 온조왕 17년(A.D. 3)에는 國母에 대한 廟를 세워 제사를 지냈다. 시조 온조왕대에는 동명묘와 국모묘, 천지에 대한 제사가 따로따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다음왕인 다루왕대에 오면 동명묘와 천지에 대한 제사가 같은해에 이루어졌다. 즉위 다음해 정월 시조 동명묘를 배알하고, 2월에 왕이 남단에서 천지에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즉위 다음해 정월에 시조 동명묘에 신왕의 즉위를 고하여 왕위계승을 고유한 다음에 남단에서 백관을 대동하고 천지에 제사함으로써 왕권의 위엄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기루왕·계루왕·초고왕 등 약 200년간에 시조 동명묘와 천지에 대한 제사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구수왕 15년(227)에 동명묘에 대해 제사를 지낸 기록이 보인다. 이 해 3월에 우박이 내리고, 4월에 큰 가뭄이 들어 왕이 동명묘에 기우하니 비가 내렸다. 시조 동명묘에 대한 제사는 이와 같이 농경생산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책계왕 2년(287)에도 동명묘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즉위 다음해 동명묘에 배알한 점에서 분서왕 2년(299)의 기사와 같다. 비류왕 9년(312) 동명묘에 대한 배알 기사가 보이며, 이 해 4월에 동명묘에 배알하고 解仇를 兵官佐平으로 삼았다. 이것은 신라의 시조묘 제사나 신궁 제사 때 중신을 임명한 기사와 성

13)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歷史學研究》 10, 全南大, 1981), 39~89쪽.

격이 같다. 아신왕 2년(393)에도 동명묘 제사와 천지신 제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아신왕 즉위 다음해 정월에 동명묘에 배알하고 남단에서 천지에 제사를 지냈으며 眞武를 좌장으로 삼아 병마의 일을 맡겼다. 여기서도 동명묘 제사와 천지신 제사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중신에 대한 임명이 뒤따랐다.

한편 전지왕 때에도 동명묘 제사와 천지신 제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즉위 다음해 정월 왕이 동명묘를 배알하고 남단에서 천지에 제사하고 大赦하였다. 이어 2월에 사신을 쫓아 보내 조공하였으며 9월에는 解忠을 달솔로 삼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사에 대한 기사이다. 동명묘 제사와 천지신 제사 때의 중신임명 기사뿐만 아니라 대사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신라의 시조묘 제사나 신궁 제사 때 함께 나타난다.¹⁴⁾ 이후에는 백제 멸망 때까지 시조묘에 대한 제사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후에는 동명묘보다 현실적 시조로서 구태(고이왕)묘 제사가 강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¹⁵⁾ 다만 백제의 멸망을 보여주는 제사에 대한 기록만이 보일 뿐이다. 福信이 道琛을 죽였는데 豊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고 다만 제사만을 주관할 뿐이었다. 즉 군사적·정치적 능력은 상실하고 다만 제사권만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제사권마저 빼앗김으로써 백제의 멸망을 고하는 것이다. 즉 부여융이 신라 문무왕과 웅진성에서 만나 白馬를 죽여 맹서하였다. 이때 劉仁軌가 盟辭를 지었는데 金書鐵契로 만들어 신라의 종묘안에 간직하게 된 것이다.¹⁶⁾ 이것으로 백제는 그 모습을 완전히 감추게 되는 것이다.

3) 지신신앙

백제의 땅에 대한 신앙은 하늘에 대한 신앙과 함께 이루어졌다. 백제 시조 온조왕 20년(A.D. 2) 왕이 큰 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낼 때 하늘과 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38년 10월에도 큰 단을 설치하여 하늘과 땅에 제사를

14) 崔在錫, 〈新羅의 始祖廟와 神宮의 祭祀〉(《東方學志》 50, 延世大, 1986), 29~86쪽.

15) 李鐘泰, 《三國時代의 「始祖」 認識과 그 變遷》(國民大 博士學位論文, 1996), 94~106쪽.

16) 《三國史記》 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지냈다. 그 다음 왕인 다루왕 때에는 즉위 직후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다. 다루왕 2년(A.D. 29) 정월 즉 즉위한 다음해 정월에 먼저 시조 동명묘를 배알하고, 다음달 2월에는 남단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다. 즉위 직후에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볼 때 즉위의례적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시조묘와 하늘과 함께 땅에 대한 제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땅에 대한 신앙과 숭배가 시조나 하늘에 대한 그것에 못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백제에서 제사가 가장 많이 행해진 것으로 전해진 고이왕 때도 땅에 대한 제사가 하늘에 대한 제사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고이왕 때에는 재위 5년·10년·14년 세번에 걸쳐 땅에 대한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낸 시기가 모두 정월달이며, 하늘에 대한 제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큰 단을 설치하였는데 남쪽에서 거행되었으며, 산과 내에 대한 제사도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제사의례를 행할 때는 북과 나팔을 사용하여 음악이 연주되어 축제적 분위기를 자아낸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제의에는 희생의례가 이루어졌음을 비류왕 때의 제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비류왕 10년(313) 봄 정월에 남교에서 땅에 제사를 지낼 때 왕이 친히 짐승을 베는 희생의례를 행하였다. 희생물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어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

한편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중신을 임명하는 예는 신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아신왕 2년(393) 봄에 동명묘를 배알하고,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나서 중신을 임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신라의 경우 일반적인데 백제도 그러했던 것 같다. 하늘과 땅, 시조로부터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후 인사권을 행하는 것이다. 땅이나 산천에 대한 제사는 홍수나 가뭄이 들었을 때도 행하였다. 아신왕 11년 여름에 크게 가뭄이 베풀어 풀들이 모두 말라 버려 왕이 横岳에서 제사를 지내니 비가 내렸다. 가뭄이나 홍수가 나면 부여의 경우와 같이 이를 왕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 한편 왕의 즉위의례로서의 제의에서는 대사면령이 내렸다. 전지왕 2년(406) 봄 2월에 왕이 동명묘를 배알하고 남단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하늘과 땅, 시조로부터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받고는 인사권을 행하거나 은사권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 대한 제사는 풍년이 들었을 때도 행하였다. 동성왕 11년(489) 가을에 대풍년이 들어 남쪽 지역에서 복속의례를 행하자 단을 설치하여 하늘과 땅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의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군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그 노고를 치하하였다. 농경사회에서는 풍흉이 사회의 생산력을 가늠하는 것이므로 가뭄과 홍수 때는 물론 풍년이 들었을 때도 제의를 행하였다. 그런데 이후로는 백제에서 땅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武寧王(501~523)의 사후 그의 장례를 치를 때 토지신에 대한 의례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무령왕의 誌石과 買地券을 통하여 당시 백제인들의 토지관을 엿볼 수 있다. 무령왕릉에서는 왕과 왕비의 지석이 출토되었다. 왕의 지석의 앞면에는 왕의 이름과 죽은 날자와 장례를 치룬 날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망위가 기재되어 있다.¹⁷⁾ 왕비의 지석에는 왕비의 죽은 날자와 장례날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매지권이 기재되어 있다. 이 매지권의 내용은 돈(錢) 1萬文을 가지고, 묘지 1건을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武寧王)이 土王·土伯·土父母·上下衆官 二千石秩에게 서쪽 땅(申地)을 사서 묘를 만들었으므로 증서(券)를 만들어 분명하게 했으니 어떤 律令도 이 영역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¹⁸⁾ 왕과 왕비의 묘지를 쓸 때 토지신에게 이를 사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율령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산소에 가면 먼저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개토를 할 때도 토지신에게 開土祭를 지냄을 볼 수 있다.

法王 2년(600) 정월에 王興寺를 창건하고 승려 30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크게 가뭄이 왕이 漆岳寺에 순행하여 비가 오기를 빌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신왕 11년(402)에는 가뭄이 들어 횡악에 가서 비가 오기를 빌었는데 여기서는 칠악사에 가서 비가 오기를 빌었다. 이것으로 침류왕 원년

17) 최근 公州 艇止山에서 발견된 유적이 국가 차원의 제의를 위해 만든 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시조나 선왕들에 대한 제사인지는 아니면 6세기 전반대의 왕이나 왕비 혹은 왕족의 사망에 즈음하여 단기간 동안 의례를 행하던 곳(殯地)인지의 여부는 추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무령왕과 왕비의 능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개진되었다(李漢祥, 〈公州 艇止山遺蹟 發掘調査의 概要〉, 第40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997, 337~384쪽).

18) 成周鐸, 〈武寧王陵 出土 誌石에 관한 연구〉(《武寧王陵의 研究現況과 諸問題》, 公州大, 1991).

(384)에 불교가 수용되어 공인되고 백제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되면서 토착신앙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⁹⁾ 종래에는 가물거나 홍수가 나면 땅이나 산천에 비가 오기를 빌거나 비가 그치기를 빌었다. 그러나 불교가 백제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되면서부터 가물거나 홍수가 났을 때 절에 가서 비가 오기를 빌거나 그치기를 비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불교가 수용된 것은 침류왕 원년이지만 불교가 국가의 공식적 의례로서 나타난 것은 법왕 2년이니 그동안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갈등과 융화되어 가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왕이 절에 가서 비오기를 빌었지만 그 절의 이름인 「漆岳寺」를 통해서 산에 있는 절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토착신앙인 산신신앙과 불교가 융화된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산성의 연구에서 산성과 제사와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²⁰⁾ 二聖山城의 발굴에서도 제사와 관련된 건물터가 발견되었다.²¹⁾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도 해상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²²⁾ 또한 익산 금마 오금산성에 위치한 백제의 보덕산성의 발굴에서도 성곽과 제사와의 관계가 밀접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3. 신라의 토착신앙

1) 천신신앙

《삼국지》 위서 동이전을 보면 삼한의 제천대회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귀신을 믿는데 국읍에 각각 1인을 세워 천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주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천신에 대한 제사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천의례의 기록이 김부식의 사대적 관념의 투영에 의해 삭

19) 車勇杰, 〈百濟의 祭天祀祇와 政治體制의 變化〉(《韓國學報》 11, 一志社, 1978), 51~76쪽.

20) 閔德植, 〈新羅 王京의 防備에 對한 考察〉(《史學研究》 39, 韓國史學會, 1987).

21) 《이성산성 이차발굴보고서》(漢陽大博物館, 1988).

22) 全榮來, 〈周留城, 白江 位置比定에 關한 新研究〉(부안군, 1973).

제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²³⁾ 그러나 《삼국사기》 제사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신궁에서 천지신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① 제2대 남해왕 3년 봄에 처음으로 시조 혁거세묘를 세우고 四時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親妹인 阿老로서 主祭하게 하였다. ② 제22대 지증왕대에 시조가 탄강한 땅인 奈乙에 神宮을 창립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③ 제36대 해공왕대 이르러 五廟를 세웠는데 미추왕은 김성 시조이고 태종대왕·문무대왕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는 데 큰 공덕이 있음으로 모두 대대로 不毀之宗으로 하고 親廟 둘로서 오묘를 삼았다. ④ 제37대 선덕왕대에 이르러 사직단을 세웠는데 사전에 보이는 것은 모두 경내 산천뿐이고 천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⑤ 이것은 대개 王制에 이르기를 天子는 七廟이며, 諸侯는 五廟로 二昭와 二穆과 太祖의 廟와 더불어 다섯이며, 천자는 천지와 천하 명산대천에 제사하고 제후는 사직과 명산대천의 그 땅에만 제사지내는 고로 감히 예를 벗어나지 않고 실행한 것이다(《三國史記》 권 32, 志 1, 祭祀).

종래에는 사료 ①·②·③만을 이용하여 시조묘에서 신궁으로, 신궁에서 5묘로 바뀐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 사료는 ④와 ⑤를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기록을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보면 세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즉 ①과 ②, ③과 ④, 그리고 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①과 ②의 제도가 ③과 ④의 제도로 변화한 것이며, ⑤는 그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는 것이다. 즉 ①의 시조묘가 제36대 해공왕대에 이르러 ③의 5묘의 제도로 변화하고, ②의 신궁이 ④의 사직단으로 변화하였으며, ⑤는 《禮記》王制篇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조묘가 5묘로 변화하고, 신궁이 사직단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⑤에 따르면 신궁의 주신은 천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대 남해왕 3년 시조 혁거세를 모시는 시조묘를 세우고 제22대 지증왕대 천지신을 모시는 신궁을 시조가 탄강한 땅인 나을에 세웠는데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제36대 해공왕대에 이르러 5묘제로 변화하고 제37대 선덕왕대 이르러 사직단을 세웠다는 것이다. 즉 천자의 예에서 제후의 예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 근거는 사

23) 金泰永, 〈朝鮮初期 祀典의 成立에 대하여—國家意識의 變遷을 中心으로—〉(《韓國史論文選集》朝鮮前期篇, 1976), 1~30쪽.

료 ⑤로서 《예기》 왕제편의 기록이다.

이러한 천지신을 숭배하는 신궁이 설치된 의미는 무엇일까. 소지왕 9년(467) 2월에 천지신을 모시는 신궁을 시조가 태어난 나을에 설치하고 나서 한달 뒤 3월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고 소사에게 관도의 수리를 명하고 7월에는 월성을 수축하였다. 따라서 천지신을 모시는 신궁의 설치가 중앙통치력 확대과정의 일환으로써 이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내의 체제정비 및 왕권강화와 대외적 국가의식의 성장은 지증왕대에 이르면 더욱 강고해진다. 천지신을 모시는 신궁의 설치는 대내적으로 국가체제의 정비에 따른 사상적 통일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증왕대 신궁제사를 토착신앙 자체내의 사상적 통일정책의 성공으로 간주한다면 불교공인 이전에 왕실의 노력으로 토착신앙내의 사상적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그렇다면 불교의 공인은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사상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신라사회의 자신감에서 이룩된 것이지 새로운 통치이념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불교공인 이후에도 천지신을 모신 신궁에 대한 제사는 계속해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공인을 巫·佛의 교대로 파악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자체적으로 사상의 통일을 이룩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외래사상인 불교를 받아들여 사상적 발전을 꾀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토착신앙을 기반으로 외래신앙인 불교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찰내의 산신각과 장승을 단순히 토착신앙의 잔재가 아니고 토착신앙의 제당구조 안에 불당을 받아들이는 특유한 복합형태로 파악한 것은 그 한 예라 하겠다.²⁵⁾

2) 조상숭배신앙

신라의 조상숭배신앙에 대한 자료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풍부하다. 시조묘 이외에 祖廟·國祖廟·廟·先祖廟·祖考廟·五廟를 설치하여 조상을

24) 崔光植, 〈新羅의 神宮設置에 대한 新考察〉(《韓國史研究》 43, 1983), 61~79쪽.

25) 崔光植, 〈巫俗信仰이 韓國佛敎에 끼친 影響—山神閣과 장승을 중심으로—〉(《白山學報》 26, 1981), 47~77쪽.

숭배하였다. 신라의 시조묘는 제2대 남해왕 3년 정월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시조묘는 시조 박혁거세의 廟로서 1년에 四時로 이를 祭祀하였으며 친누이인 阿老로서 이를 주제하게 하였다. 이후 제8대 아달라왕 17년(170) 2월에 시조묘를 중수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한편 21대 소지왕대에 이르면 시조묘에 守廟 20家を 증치하였다. 소지왕 7년(485) 2월에 仇伐城을 수축하고 여름 4월에 시조묘에 친사하고 수묘 20가를 증치하였고 5월에는 백제가 내방하였다. 이때 수묘 20가를 증치한 데 대한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잘알 수가 없다. 다만 수묘 20가를 증치했다는 것을 볼 때 이전에도 수묘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守廟」가 「守墓」와 같은 의미일 것 같은 느낌을 준다.

王廟를 王陵으로 인식한 것은 味鄒王陵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추왕릉을 始祖堂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왕묘를 왕릉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廟와 陵이 혼용되어 불리고 있는 것은 金首露王陵에서도 볼 수 있다. 《駕洛國記》에 보면 김수로왕릉을 왕묘라고 하였으므로 능과 묘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朴赫居世廟는 박혁거세의 능이라 볼 수 있으며 五陵이 始祖廟라고 볼 수 있다. 미추왕릉을 大祖인 三山과 같은 격으로 제사 지내고 5릉의 위에 놓으며 大廟라 칭한 《삼국유사》味鄒王 竹葉軍條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시조묘가 어떻게 하나의 능이 아니라 다섯 개의 능으로 되었을까. 이는 통일 이후에 5묘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김씨 왕실의 왕묘가 5묘가 될 때 박씨 왕실의 왕묘도 5묘로 되면서 5릉이 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신라의 경우 5묘제가 시행된 것은 神文王代가 처음이며 제도화된 것은 惠恭王代 이후이다. 그러므로 시조묘가 5릉으로 된 시기는 신문왕대와 해공왕대 사이라고 생각된다.²⁶⁾ 그러면 시조묘를 비롯한 묘에 대한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삼국사기》신라본기에 나오는 시조묘에 대한 역대 왕의 제사기록과 그 관련 기사를 도표화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26) 崔光植, 〈新羅 上代 王京의 祭場〉(《新羅 王京 研究》, 新羅文化宣揚會, 1995), 74~76쪽.

〈표〉 역대 왕의 親祀기록과 그 관계기사

王代	王名(姓)	年.月	親祀記錄	關 係 記 事
2	南 解(朴)	3. 1	立始祖廟	
3	儒 理(朴)	2. 2	親祀始祖廟	大赦
4	脫 解(昔)	2. 2	親祀始祖廟	春正月拜瓠公爲大輔
5	婆 娑(朴)	2. 2	親祀始祖廟	三月巡撫州郡發倉賑給
6	祗 摩(朴)	2. 2	親祀始祖廟	拜昌永爲伊瀆 以參政事 玉權爲波珍瀆 申權爲一吉瀆 順宣爲級瀆
7	逸 聖(朴)	2. 1	親祀始祖廟	
8	阿達羅(朴)	2. 1	親祀(始)祖廟	大赦 以與宣爲一吉瀆
		17. 2		重修始祖廟
		19. 2		有事始祖廟 京都大疫
9	伐 休(昔)	2. 1	親祀始祖廟	大赦
10	奈 解(昔)	2. 1	謁始祖廟	
		3. 4		始祖廟前臥柳自起
		10. 8		狐鳴金城及始祖廟庭
11	助 賁(昔)	1. 7	謁始祖廟	
12	沾 解(昔)	1. 7	謁始祖廟	封父骨正爲世神葛文王
		7. 7	禱祀祖廟及名山	乃雨 年饑多盜賊
13	味 鄒(金)	2. 2	親祀國祖廟	大赦 封考仇道爲葛文王
		20. 2	謁廟	
14	儒 禮(昔)	2. 1	謁始祖廟	
15	基 臨(昔)	2. 2	祀始祖廟	
16	訖 解(昔)	2. 2	親祀始祖廟	
17	奈 勿(金)	3. 2	親祀始祖廟	紫雲盤旋廟上 神雀集於廟庭
		7. 4		始祖廟庭樹連理
18	實 聖(金)	3. 2	親謁始祖廟	
19	訥 祗(金)	2. 1	親謁始祖	王弟卜好自高句麗 與堤上奈麻還來
		19. 4	祀始祖廟	
20	慈 悲(金)	2. 2	謁始祖廟	
21	炤 知(金)	2. 2	祀始祖廟	增置守廟二十家
		7. 4	親祀始祖廟	置神宮於奈乙 奈乙始祖
		9. 2		初生之處也
		17. 1		王親祀神宮

王代	王名(姓)	年.月	親祀記錄	關 係 記 事
22	智 證(金)	3. 3	親祀神宮	下令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至是禁焉 分命州郡主勸農 始用牛耕
23	法 興(金)	3. 1	親祀神宮	龍見楊山井中
25	眞 智(金)	2. 2	王親祀神宮	大赦
26	眞 平(金)	2. 2	親祀神宮	以伊瀆后稷爲兵部令
27	善 德(金)	2. 1	親祀神宮	大赦 復諸州郡一年租調
28	眞 德(金)	1.11	王親祀神宮	
30	文 武(金)	8.11	謁先祖廟	告曰 祇承先志 與大唐同舉義兵 問罪於百濟高句麗 元兇伏罪 國步泰靜 敢茲控告 神之聽之
31	神 文(金)	2. 1 7. 4	親祀神宮 遣大臣於祖廟致祭	大赦 曰 王某稽首再拜 謹言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之靈
32	孝 昭(金)	3. 1	親祀神宮	大赦 以文穎爲上大等
33	聖 德(金)	2. 1	親祀神宮	遣使入唐貢方物
34	孝 成(金)	3. 1	拜祖考廟	
35	景 德(金)	3. 4	親祀神宮	遣使入唐獻馬
36	惠 恭(金)	2. 2	王親祀神宮	
37	宣 德(金)	2. 2	親祀神宮	
38	元 聖(金)	3. 2	親祀神宮	京都地震 大赦
40	哀 莊(金)	2. 2 3. 1	謁始祖廟 王親祀神宮	別立太宗大王文武大王二廟 以始祖大王及王高祖明德大王 曾祖元聖大王皇祖惠忠大王皇考昭聖大王爲王廟 以兵部令彥昇爲御龍省私臣 未幾爲上大等 大赦
41	憲 德(金)	2. 2 5. 2	王親祀神宮 謁始祖廟	發使修葺國內堤防 玄德門火
42	興 德(金)	2. 1 8. 4	親祀神宮 王謁始祖廟	
46	文 聖(金)	5. 7		五虎入神宮園
47	憲 安(金)	2. 1	親祀神宮	
48	景 文(金)	2. 2 12. 2	王親祀神宮 親祀神宮	
55	景 哀(朴)	1.10	親祀神宮	大赦

위의 <표>를 보면 시조묘의 명칭과 제사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시조묘는 시조 박혁거세의 묘이나 단순히 박씨의 조상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박혁거세는 박씨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라의 국조인 것이다. 따라서 시조묘 이외에 조묘와 국조묘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누가 지냈는가. <신라본기>에는 왕이 친히 제사했다고 되어 있으며, <제사지>에서는 친매인 아노로서 주제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계절마다 지내는 통상적인 의례는 아노와 같은 제관이 주제하고, 즉위의례 등 중요한 경우에는 왕이 친히 제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왕이 친사하는 경우에도 제관인 아노는 제사에 관여하였다. 왕은 제주로서 제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아노와 같은 제관은 이미 왕의 직속하에 제의의 기능적인 면을 담당하는 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통일기 이후 신문왕 때에는 대신을 보내서 조묘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왕이 친제하다가 통상적인 의례의 기능적인 면을 제관에게 넘겨주어 주제하게 하다가 통일기 이후 대신으로 하여금 주제하게 하도록 변화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시조묘에 대한 제사의례는 어떠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계급사회로 들어서면서 지배자는 여러 신들 중에서 천신에 대한 제사의례를 통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려 하였다. 여러 신들의 서열화 과정에서 천신이 정점을 이루게 되어 제천의례가 행해졌다. 그러나 국가형성이 본격화하면서 지배자는 天의 子 또는 天의 孫이라는 의식을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천강신화를 가진 박혁거세를 위한 시조묘를 세우고 이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왕권의 강화를 꾀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의를 통하여 내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하고, 주변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이데올로기를 확립한 것이다. 따라서 시조묘 제의는 고대 국가형성의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며, 《삼국지》한전에 보이는 대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소국에서의 천신에 대한 제의가 마침내 대국에서는 천의 자손에 대한 제의로 발전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시조묘 제의가 갖는 정치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사제도가 시조묘에서 오묘로, 신궁에서 사직으로 변화하였다고

고찰한 바 있다. 그러나 <신라본기>를 보면 오묘나 사직이 설치된 이후에도 시조묘와 신궁에서 행한 제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시조묘에서 오묘로, 신궁에서 사직으로 변화했다고 한 것은 <제사지>를 분석한 내용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도상 그러했다는 것이다. <신라본기>에 의하면 통일기 이후에도 시조묘와 신궁에 대한 제사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신라문화의 특징으로 제도와 실체가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제도상으로는 중국을 의식하여 시조묘 대신에 오묘로, 신궁 대신에 사직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졌지만 신라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제사인 시조묘와 신궁에 계속하여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신라는 중국에서 종묘제를 수용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중국의 종묘제 원칙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었다.²⁷⁾

3) 지신신앙

신라의 지신과 산천에 대한 신앙은 고구려와 백제보다 자료가 풍부하다. 《삼국사기》신라본기뿐만 아니라 제사지에 위계적으로 잘 나타나 있으며, 《삼국유사》에도 땅과 산악에 대한 신앙이 잘 나타나 있다.

逸聖尼師今 5년(138) 10월에 왕이 북쪽으로 순행하여 태백산에서 친히 제사를 지냈다. 한편 基臨尼師今 3년(300) 3월에 왕이 우두주(지금의 춘천지방)에 이르러 태백산에 望祭를 지냈다. 이와 같이 신라초부터 산악에 대한 제사를 왕이 친히 지낸 것을 볼 때 산악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 있다. 특히 태백산에 대한 제사를 중요시 하였는데 이는 신라가 북쪽으로 진출하려는 의지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기림니사금 3년에 牛頭州가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망제는 먼 곳에 위치한 名山大川을 바라보면서 지내는 제사이지만 바라보며 지내는 제사의 대상은 자국의 영토로 한정되기 때문이다.²⁸⁾

한편 지신에 대한 숭배는 하늘에 대한 신앙과 함께 이루어졌다. 백제에서

27) 나희라,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韓國史研究》 98, 1997), 57~89쪽.

28) 鄭雲龍, 《5-6世紀 新羅 對外關係史 研究》(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6), 51~53쪽.

와 같이 천지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확실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천신 신앙에서 살펴보았듯이 신궁은 천지신에 대한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炤知王 7년(485) 4월에 왕이 시조묘에 친히 제사를 지내고 수묘 20가를 증치하였다. 그리고 9년 2월에는 신궁을 나을에 설치하였는데 나을은 시조가 처음 태어난 곳이다.²⁹⁾ 시조묘에 대한 제사에서 시조가 태어난 땅에 대한 제사로 옮겨간 것이다. 또한 17년 정월에는 왕이 신궁에서 친히 제사를 지냈다. 智證王 3년(502) 3월 왕이 친히 신궁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후 역대 왕들은 즉위 직후 신궁에서 제사를 지냈다. 한편 〈제사지〉를 보면 제22대 지증왕이 시조가 태어난 땅인 나을에 신궁을 창립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신궁이 소지왕 때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사지〉에는 지증왕 때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신궁이 소지왕 때에 설치되었으나 신궁에 대한 제사가 즉위 직후에 행한 것은 지증왕 때부터이므로 〈제사지〉에서는 제도화한 때를 기록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즉 소지왕 9년(487)에 처음으로 신궁을 설치하고, 17년에 처음으로 왕이 신궁에 제사를 지냈으나 왕의 즉위 직후에 지내는 즉위의례로서의 제사는 지증왕 3년이므로 이를 〈제사지〉에 기록한 것이다.

〈제사지〉에서는 처음에 종묘의 제도에 대해서 논하고 3산5악 이하 명산대천은 대사·중사·소사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신라는 신라 영역내에 있는 명산과 대천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사를 지낸 것이다.³⁰⁾ 이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제사체계가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신라의 영토관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³¹⁾ 〈제사지〉에 기록된 내용은 통일전쟁 이후에 체계화된 것이지만 통일전쟁 전에도 이와 같은 제사체계는 있었다. 예컨대 3산에 대한 기록은 통일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삼국유사》 김유신조에 보면 김유신과 3산의 신들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29) 崔光植, 〈新羅 上代 王京의 祭場〉(《新羅 王京 研究》, 新羅文化宣揚會, 1995), 74~76쪽.

30) 崔光植, 〈新羅의 大祀·中祀·小祀의 祭場〉(《역사민속학》 4, 역사민속학회, 1994), 50~70쪽.

31) 濱田耕策, 〈新羅의 祀典と 名山大川の 祭祀〉(《泡末集》 4), 147~166쪽.

郎(김유신)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치려고 밤낮으로 깊이 꾀하고 있을 때 白石이란 자가 그 일을 알고 낭에게 고하되 자기와 公이 함께 몰래 적국을 선탐한 뒤에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낭이 기뻐하며 친히 백석을 데리고 밤에 떠나서 고개 위에서 막 쉬고 있을 때 두 여자가 나타나 낭을 따라왔다. 骨火川에 이르러 유숙하는데 또 한 여자가 홀연히 와서 공은 세 여자와 더불어 기쁘게 이야기하였다. ...여자들이 고하되 ‘공이 말하는 바는 이미 알고 있으니 원하건대 공은 백석을 그냥 두고 우리와 함께 숲속에 들어가면 다시 실정을 말하겠다’ 하고 이어 함께 들어갔다. 여자들이 문득 귀신이 되어 말하기를 ‘우리들은 奈林·穴禮·骨火 등 세 곳의 호국신이다. 지금 적국인이 낭을 유인하는 것을 낭이 알지 못하고 따라가므로 우리가 낭을 만류시키려 이곳에 온 것이다’라고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아니하였다(《三國遺事》 권 1, 紀異 2, 金庾信).

이를 통하여 통일전쟁 이전에 이미 3산의 신들이 중요시되고 있었으며 또한 이들이 호국신임을 알 수 있다. 奈林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翫比部에 있던 산이며, 骨火는 영천지방에 있는 산이다. 穴禮는 종래에는 청도의 오리산이나 월성군의 단석산으로 비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영일냉수리비가 발견된 뒷산인 아래산이 유력하다. 즉 혈례산→열례산→열레산→어래산으로 음전되어 지금의 아래산이 된 것이라 보고 있다.³²⁾ 따라서 호국삼신에 대하여 제사를 지냈던 대사의 장소들은 신라의 수도 경주와 그 인접지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일전쟁 전에는 3산5악의 위치가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통일전쟁 이후에는 국토의 영역 확대와 함께 전국적 규모로 변화하였다.³³⁾ 즉 3산5악의 산신신앙은 신라 초기의 경주지방의 산신숭배신앙에서 통일전쟁 이후 전국에 걸친 지역의 산신숭배신앙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숭배대상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는 당시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32) 金崙禹, 〈新羅時代 大城郡에 관한 考察〉(《新羅文化》 3·4합집, 東國大, 1987), 22~24쪽.

33) 李基白, 〈新羅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震壇學報》 33, 1969), 7~23쪽.

4.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관계

재래의 토착신앙이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잡고 천지신을 그 정점으로 하여 대중화되어 있는 가운데 외래신앙인 불교가 전래되었다. 따라서 재래신앙인 토착신앙과 외래신앙인 불교는 갈등을 벌이게 된다. 종래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巫佛交代라는 입장으로 단순화시켜 보아 왔다.³⁴⁾ 그것은 지배층의 입장에서 불교의 전래와 수용을 이해하였기 때문이었다. 외국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된 것과 이것을 그 사회가 수용하는 것, 국가가 이를 공인한 것과는 개념상의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종래 연구는 이를 간과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³⁵⁾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여 불교가 전래된 것이 그렇게 많이 늦은 것이 아니다. 이미 訥祗王대에 사문 墨胡子가 고구려로부터 一善郡 사람 毛禮의 집에서 포교활동을 하였으며, 양나라 사신이 왔을 때 왕실에 들어가 불교에 대해 이해를 시켰던 것이다. 더구나 炤知王대에는 이미 內殿에 焚修僧이 자리잡고 있었다.³⁶⁾ 신라는 다만 국가적 공인 조치가 늦었을 뿐이다. 그것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토착신앙과 불교가 갈등과 대립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고구려나 백제는 이미 중국문화에 대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 들어온 불교에 대해 거부감이 적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신라는 중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적어 불교를 수용하는 데 많은 사상적 갈등을 겪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신라가 토착신앙에 의해 사상적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신라는 천지신을 모신 신궁을 설치하여 사상적 통일을 하였으므로 외래신앙인 불교에 대하여 대립과 갈등이 심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이차돈이 토착신앙의 제장인 天鏡林에 사찰을 지으려다가 강력한

34) 이기백, 〈三國時代의 佛教傳來와 그 社會的 性格〉(《歷史學報》6, 1969), 1~30쪽.

35) 최광식, 〈신라의 불교 전래, 수용 및 공인〉(《신라사상의 제조명》, 신라문화선양회, 1991), 107~120쪽.

36) 辛鍾遠, 《新羅初期佛教史研究》(민국사, 1992), 13~22쪽.

저지에 직면하였으며 그러한 경험이 신라인으로 하여금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부진통을 겪게 됨으로써 독특한 신라의 불교를 발전시켜 나갔다.³⁷⁾ 이러한 과정에서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타협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신각과 장승이라 하겠다. 즉 불교가 처음 전래되어 수용되는 단계에는 토착신앙과 불교가 대립과 갈등을 겪게 되었으나 일단 그 과정을 거치면서 융화되어 가는 문화접변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교공인 이후를 巫佛交代로 보아서는 안되며 巫佛融化的 입장에서 신라사상의 흐름을 파악하여야 한다.

1)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갈등

토착신앙과 불교가 갈등을 빚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이 이차돈의 순교설화이다. 이차돈의 순교설화는 《삼국사기》·《해동고승전》·《삼국유사》 및 금석문에 실려 있다. 이들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료들을 검토해 보면 법흥왕이 본디 불법을 존중하여 興敎할 뜻이 있었으나 군신들의 반대가 두려워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興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던 이차돈에 의해 창사의 결심을 하고 이차돈에게 왕명을 내리어 창사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군신들은 절을 지으라는 왕명에 대하여 내심으로 반발하였지만 강력하게 반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차돈이 토착신앙의 성소인 천경림에 절을 지으려 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게 되었고, 이에 따라 創寺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다. 왕이 창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 보니 이차돈이 왕의 허락도 없이 토착신앙의 성소인 천경림에 창사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왕은 토착신앙의 성소인 천경림에 창사하려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군신들의 의견을 도외시 할 수 없었고, 더구나 자기와 장소에 대하여 의논하지 않고 천경림에 창사한 이차돈을 왕의 입장에서 矯命罪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흥법의 온건파인 법흥왕은 흥법문제에 있어서 군신들이 측각을 위낙 날카롭게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37) 崔光植, 〈異次頓 說話에 대한 新考察〉(《韓國傳統文化研究》創刊號, 曉星女大, 1985), 223~237쪽.

이차돈이 군신들의 신경을 건드려 가며 천경림에 창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홍법의 강경파인 이차돈은 창사를 할 바에는 아예 토착신앙의 본거지인 천경림에 창사함으로써 홍법의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군신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자 왕은 군신들의 반발을 일단 완화시키고 왕명의 준엄함을 보이기 위해 이차돈을 교명죄로 처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홍법에 대해 온건파인 법흥왕과 강경파인 이차돈의 의견차이와, 홍법 자체에 대한 반대파인 군신들과의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서 이차돈이 순교를 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아직 강력한 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불교세력이 결국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왕권의 강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또한 토착신앙의 성소인 천경림에 창사함으로써 불교가 공인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불교가 지배이데올로기화되어 가고 불교세력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무불교대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불교가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되어 종래 토착신앙이 갖고 있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통치이념의 변화일 뿐 사상적으로는 두 개의 신앙이 마찰과 갈등을 겪으며 융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즉 불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토착신앙이 다소 약화되었지만 그 전통은 지속되어 오히려 불교에서 배워온 것도 있고, 반대로 불교가 토착신앙의 제요소와 융화하여 독특한 한국불교로 토착화되어 갔다. 불교는 지배층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피지배층 일반에서는 토착신앙이 일반적 추세였다. 따라서 통치이념의 관점에서 지배층 위주로 볼 때는 무불교대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사회사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 불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피지배층 일반에서는 대부분 기존의 토착신앙을 중요시 하였으며, 또한 불교 자체도 토착신앙과 융화하여 토착화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2)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융화

전국 어떤 사찰에 가더라도 불교 본연의 불사를 드리는 본당 이외에 토착신을 모신 冥府殿・十王殿・山神閣・七星閣 등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불교가

인도·중국·한국에 있어서 각국의 토착신앙과 융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신을 모신 산신각은 우리 나라 토착신앙과 불교가 융화된 모습을 나타내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또한 산문 근처나 사찰 입구에서 장승이나 돌무더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산신각이나 사찰입구의 장승은 한국사찰의 특징이며, 이는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융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람의 배치에서 뿐만 아니라 사찰연기설화·연등회·팔관회·탱화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토착신앙 내에도 무당의 무의·무구·무신도·무속용어 등에 불교적 요소가 융화되어 있다. 이렇게 토착신앙과 불교는 상호 영향을 끼치며 융화되었던 것이다.

고대사회에서 토착신앙이 불교화한 것으로 환인천제가 불교의 제석천 곧 제석환인의 신앙으로 변화한 것과 국조 단군이 독성님이나 불교적 산신으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불교신앙이 토착신앙화 한 경우로는 불교의 미륵신앙이 화랑국선으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토착신앙과 불교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료는 토착신앙의 성역과 불교사찰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 일연이 아도본비를 인용하여 신라는 그 서울안에 일곱개의 가람의 터가 있으니 하나는 금교 동쪽의 天鏡林이요, 둘째는 三川岐요, 셋째는 龍宮의 남쪽이요, 넷째는 龍宮의 북쪽이요, 다섯째는 沙川尾요, 여섯째는 神遊林이요, 일곱째는 壻講田이니 모두 전시에 가람의 터로 범수가 길게 흐르는 땅이라 하였다.³⁸⁾ 여기서 천경림, 삼천기, 용궁 남, 용궁 북, 사천미, 신유림 및 서청전 등은 토착신앙의 신성지역들이다. 사원 건립 이전부터 토착신앙의 종교적 공간으로 여기에 불교사찰이 들어섰던 것이다. 그러나 토착신앙의 신성지역에 불교사찰이 들어섰지만 佛·菩薩에 대한 숭배와 의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토착신에 대한 숭배와 의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삼국유사》의 선도산 성모수회불사조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선도산에 山神과 神母의 神祠가 있었는데 이들 산신과 신모의 도움으로 새로 불전을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신모가 불상과 더불어 벽상에 53佛과 6類聖衆 諸天神과 五岳神君을 그려 받들며 占察法會를 베풀어 이를 항규로 삼으라 하였다.

38) 《三國遺事》 권 3, 興法 3, 阿道基羅.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고려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주기하였다. 진평왕대(579~631)의 이 기록은 산신과 비구니, 신사와 불전, 불상과 천신, 산신탕화가 융화하고 있는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³⁹⁾ 더구나 일연이 주기한 오악에 대해 살펴보면 산신과 불사와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일연은 여기의 오악을 《삼국사기》 제사지에 보이는 오악으로 보았으나 안흥사의 비구니 지혜가 모신 오악신군은 경주평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오악에 있는 산신이다. 《동국여지승람》의 경주 산천조에 의하면 선도산이 서악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의상이 전교활동을 하던 화엄십찰이 오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⁴⁰⁾

의상이 부석사를 지을 때 이미 이교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의 이교도는 바로 토착신앙을 믿는 무리들인 것이다. 결국 삼국시기의 경주평야를 중심으로한 지역의 오악과 남북국시기의 《삼국사기》 제사지에 보이는 오악 모두 토착신앙과 불교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선종이 수용된 9세기 이후 산지가람으로 발전하면서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관계는 보다 긴밀하게 된다. 산신이 사원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산지의 가람건립 과정에서 보다 확대되어 갔다.

토착신앙의 성소는 산신각과 장승의 형태로 불사와 융화하거나 민간에서는 계속 신성지역으로 숭배되어 산신당·서낭당·장승과 솟대의 형태로 남아 있다. 위치상으로 보아 산신각이 상위, 불당이 중위, 장승이 하위에 위치하는 우리 나라 가람의 삼중구조는 상당으로 관념되는 산신당, 중당으로 관념되는 서낭당, 하당으로 관념되는 장승과 솟대의 동제당의 삼중구조와 상호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산신각과 장승은 단순히 토착신앙의 잔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토착신앙 성역의 구조안에 불단을 받아들이는 특유한 복합형태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⁴¹⁾ 이러한 신당은 불교의 수용과 함께 융화되어 토착신앙의 가람 건립화에 따라 사원내에 존재하며 현세구복, 기복불교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39) 《三國遺事》 권 5, 感通 7, 仙桃聖母隨喜佛事.

40) 李基白, 앞의 글(1969), 7~23쪽.

41) 崔光植, 〈巫俗信仰이 韓國佛教에 끼친 影響〉(《白山學報》 26, 1981), 47~77쪽.

3) 토착신앙과 불교의 교대

원시공동체사회에서는 하늘·땅·해·산·바람·비·동물 등 여러 자연신에 대한 신앙과 제의가 이루어졌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계급이 발생하고 정치체가 형성되면서 여러 신들의 위계화가 이루어져 자연신의 하나인 天神이 여러 자연신의 최고 정점에 자리잡게 되었다. 고대사회의 지배자는 萬神들의 하이어라키의 최고 정점에 위치한 천신을 자기와 동일시하여 천신을 지배이데올로기로 하여 계급사회의 정당성을 사상적으로 보장받고자 하였다. 고대국가가 발전하면서 시조묘를 세워 천신신앙과 조상숭배신앙을 결합시켜 다른 정치체보다 우월함을 보였으며, 정복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지역신을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 재편성하면서 天地神을 신앙하고 祭儀를 받들었다.

노동력의 수취보다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복전쟁이 확대되고 많은 군사력이 요구되어 良人化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신분체제의 변화는 새로운 사상과 신앙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미 전래 수용된 불교를 국가이데올로기로 하였다. 이는 불교가 천신신앙보다 평등주의적이며 보편적인 종교였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는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모두에게 필요하게 되었다. 피지배층은 현실적 어려움, 특히 전쟁에 참여하면서 현실보다는 내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 수 있었다. 지배층은 피지배층을 광범위하게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피지배층이 믿는 불교를 이용하여 전쟁에 승려들을 참여시키고 전몰장병을 위해서 八關會를 베풀었다. 그리고 불교를 國敎로 하여 大僧統을 임명하였고 國家寺院인 成典寺院을 건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상사적으로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토착신앙에서 불교로의 변화는 보다 평등주의적이고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로의 변화라 할 수 있으며, 五廟와 社稷에 대한 제사로의 변화는 중국적 예제로 편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崔光植〉